

3. 기능성 화장품 I

기능성 화장품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는 코스메슈티컬 내 카테고리로서 정의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제품으로,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일반 화장품에 비해 기능성 화장품은 안정성 이외에도 유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2000년 7월 화장품법 시행 이후 매년 급성장해 왔으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는 2005년 1,957개 품목에서 2013년 22,840개로 급증했다. 생산금액 역시 2005년 6,0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2조 5,600 억원으로 국내 화장품 생산금액 내 약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치유개념이 도입된 고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 1990년대 중반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면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연구개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안티에이징, 필러, 자외선차단, 미백, 여드름치료 등). 국내 시장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시작돼 현재 국내 화장품 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 노령화 사회 가속화로 고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1. 기능성 화장품 개요

최근 화장품 소비자의 제품선택 요인은 과거 「브랜드 인지도」에서 「목적성·기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이나 유전자변형에 따른 화장품 성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천연성」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되어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 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피부세포의 분화, 노화현상의 규명, 인공세포의 개발 등 피부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여러 기능성 천연 화장품이 개발 되었으며, 미백, 보습, 자외선 차단 및 흡수, 유해산소제거, 콜라겐합성, 피부주름방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천연소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의 단일 기능성만을 강조한 화장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두가지의 기능성을 혼합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미백과 주름개선의 기능을 혼합한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든 기능을 혼합한 삼중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도 사용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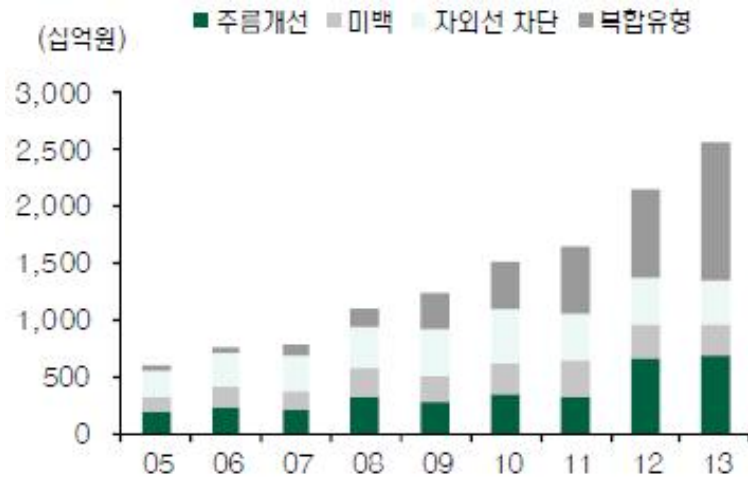


그림 1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

자료 : 식약청

구분	효능효과
미백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라닌생성 및 산화 방지 · 멜라닌 색소 환원 · 피부 각질 제거 · 피부 색소 침착 방지 · 기미, 주근깨 개선 및 제거
주름개선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탄력 강화 · 콜라겐 합성 촉진 · 표피 신진대사 촉진 · 섬유아세포 생성 촉진
자외선 보호/ 태닝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 자외선 차단, 산란 · 일소 방지

그림 2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

자료: 식약청

3-2. 화장품 원료 구성

화장품 원료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제수가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제수는 화장품 원료 중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화장품이 변질되거나 부패,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엔 단순

히 화장품의 베이스 원료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기능적인 화장품 원료로 부각되고 있어 아모레퍼시픽, 라메르 등 고가 화장품 라인의 정제수가 발효수, 빙하수, 녹차수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화장품의 주요 구성성분

이러한 각종 기능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수를 사용하는 주요제품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브랜드	제품명	베이스 원료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처 바운드 스킨	대나무 수액(경남 사천)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동해 심층수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	생녹차수
라메르	트리트먼트 로션	전기에너지가 포함된 디퀀스트럭티드 워터
라메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갈조추출물

그림 4 기능성 정제수를 사용한 주요제품

3-3.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규모 및 사용현황

(1)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매년 진행된 연구사업 2014년 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 실태조사에 따른 화장품 업체 실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화장품 매출액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국내매출	수출	계
1억미만	1,026	32,070	1,039	33,109
1억 ~ 10억	1,255	420,125	32,284	452,409
10억 ~ 100억	711	1,872,001	185,836	2,057,837
100억 ~ 1,000억	119	3,428,906	190,516	3,619,421
1,000억 이상	17	7,234,491	430,977	7,665,468
합 계	3,127	12,987,593	840,652	13,828,245

이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매출은 3조 7,389억원이며, 이는 전체 화장품 제조 판매업 매출의 27.0%이다. 그 중에서 자사 브랜드로 판매한 기능성화장품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28.8% 이며, 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 매출 중 기능성 화장품 매출은 21.8%로 나타났다.

[표 2] 국내 기능성 화장품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자사브랜드로 판매	수입판매	계	자사브랜드로 판매	수입판매	계
전체 (A)	9,615,302	3,770,062	13,385,364	10,418,096	3,410,149	13,828,245
기능성 화장품 (B)	2,781,792	792,735	3,574,527	2,995,952	742,899	3,738,852
비율 (B/A*100)	28.9	21.0	26.7	28.8	21.8	27.0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복합유형」이 1조 3,700억원 으로 전체 기능성 화장품의 3분의 1이상인 36.6%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이 9,257억원이며, 「주름개선」이 8,899억원, 「미백」 5,53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기능성 화장품 종류별 매출 비교

구분	2013년					
	국내매출		수출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백	509,494	14.7	43,719	16.2	553,213	14.8
주름개선	821,967	23.7	67,929	25.1	889,897	23.8
자외선 차단	866,973	25.0	58,745	21.7	925,718	24.8
복합유형	1,269,922	36.6	100,102	37.0	1,370,024	36.6
합계	1,269,9221	36.6	100,102	37.0	1,370,024	36.6

(2) 기능성 화장품 사용현황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기능성 화장품 제품 중에서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37.6%와 「목욕용 제품류」 35.0%로 순서대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방향용 제품류」 16.7% 와 「눈 화장용 제품류」 16.7%는 기능성 화장품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고자료]

1. 화장품 미용연감 (2011), 주간 코스메틱
2.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2015), 임팩트
3. 메디칼스킨케어 II, 성분학: 화장품의 치료성분-식물 의학을 중심으로, 임송출판
4. 화장품과학, 김연주 외, 청구문화사
5. 화장품 제조이론 및 실제, 권순봉 외, 보성 출판